



2024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2024년, 갑진년(甲辰)은 푸른 용의 해 육십갑자의 41번째로 청룡(靑龍)을 의미한다.

제발 올해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쓴다.

1. 어김없이 찾아온 고병원성 AI

2023년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한 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1)이 검출되었고 이에 따른 AI 위기단계가 격상되었다.

그 후 12월 3일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농장에서 첫 신고와 확진이 이루어졌고, 연이어 12월 16일까지 12개의 농장(닭 7, 오리 5곳 포함)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한 장 혁

코미팜 본부장
수의사 / 본지 편집위원



Michael Foods announces loss of 4.2 million layers to HPAI

The U.S. egg producer's farms that were affected are located in Iowa and Ohio.

[Read more](#)

일본은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 지역에서 큰부리까마귀, 10월 8일 홋카이도 구시로 지역에서 동부독수리에서 HPAI(H5N1)의 발견이 있는 후에 11월 24일 사가현 산란계에서 72,000수에서 발생하였고, 4, 5일 간격(12월 3일 기준)으로 4개 농장에서 발생하였다.

2022년도에는 10월 28일 첫 발생과 비교하면 한 달이상 후에 발병한 것이다.

미국도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꾸준히 검출된 이후 11월까지 98건 발생하여, 8백만수 정도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월 7일 오하이오와 아이오하 소재의 농장에서 HPAI의 발생이 보고되었다. 유럽 또한 10월부터는 증가 추세도 진행되고 있다.

2. 변화되는 바이러스

12월 4일 전북 정읍 정읍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6일 경남 창원 진전천 포획된 야생 조류에서 H5N6의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H5N1과 H5N6의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2016~2017년 발생했던 H5N6의 경우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 해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하며, 이듬해 4월까지 발생이 계속되었고, H5N1과는 달리 H5N6는 전파속도와 임상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미한 임상증상이 있더라도 세심한 임상관찰을 통한 조기 신고가 필요하다.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가금에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사료 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에도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야 하며, 또한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고압분무 소독), 알운반차량 농장내 진입금지,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출입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한다.

3. 야생조류의 이동경로

그림에서 보듯이 22~23년의 야생조류의 이동경로와 23~24년의 이동경로의 차이가 있다. 지난 시즌은 러시아-평택-아산, 그리고 중국-논산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번 시즌은 러시아-일본(10.17)-부산(11.7), 중국-북한(11.10)-익산(11.13)으로 경로의 변화를 알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기후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기후 온난화와 초겨울에 따뜻했던 것들의 영향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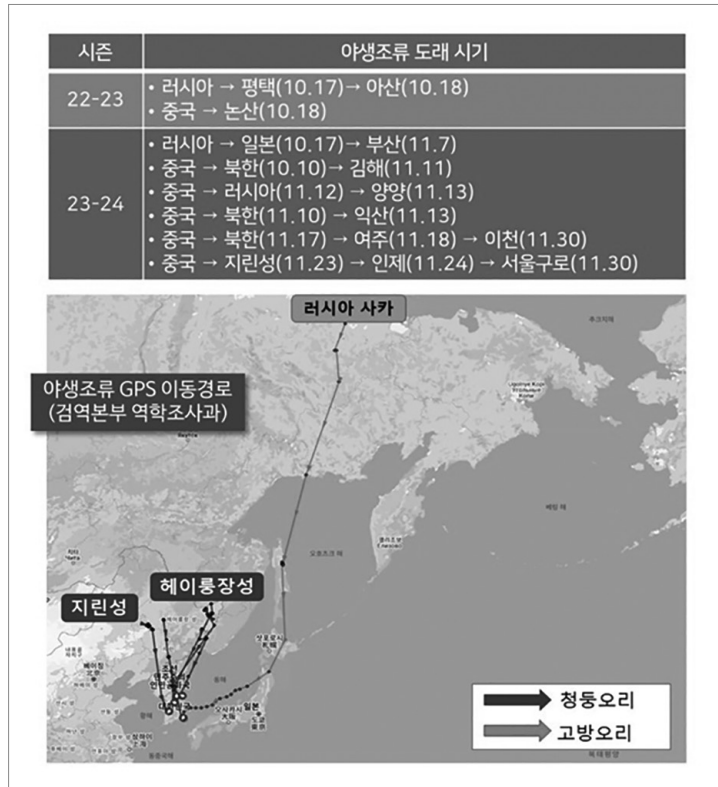


그림 : 출처 서울사료 소식지

4. 앞으로 해야 할 일

이전에 경험하였고, 학습하였던 모든 사실을 기반으로 변화의 요소들을 추가하여 면밀한 분석 필요하며, 두 가지의 혈청형이 혼재되어 발생할 때(16~17년) 피해가 컸으며, 오래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기억을 상기하였으면 한다.

우리 농장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며, 매일 소독과 신발, 작업화등의 소독 및 계군의 관찰을 열심히 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변화(음수량, 사료섭취량, 산란율 등)라도 증상이라고 관찰하여 조기에 신고하여야 한다. 양계